

연중 제2주일 (일치주간)
제1독서 : 이사 62, 1-5
제2독서 : 1 고린 12, 4-11
복 음 : 요한 2, 1-11

순정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2, 5).

강론

소리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고 경 훈 신부 / 남원 천주교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등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를 체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고통과 비참함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압당한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안에서든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상의 온갖 죄와 악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기고 영광스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 안에서든 우리로 하여금 강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할 때에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했던 당시의 풍습에서 우리는 그 잔치의 성대한 분위기와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동이 나서 잔치를 망치게 된 잔칫집 주인의 당황해 하는 모습을 쉽게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 그 잔칫집 주인에게는 참으로 은총이었습니다. 자칫 망쳐버릴 수도 있었던 그 혼인잔치가 예수님 덕분에 즐겁고 성대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체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며,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쁘고 즐거웠던 성탄시기를 끝내고 예수님의 공생활을 묵상하는 연중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 안에서든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정초부터 약속을 깨다니”

사람들은 정초가 되면 서로 덕담(德談)을 나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비는 등 서로에게 알맞고도 반가운 말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 벽두부터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말을 듣게 되었다. “법에 정해진 선거를 연기한다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거 연기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덩어리의 이 말, 이것이 대통령의 덕담인가!

국회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2항에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자신이 공포한 법률을 지키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면서도,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니, 궤변도 이쯤이면 가히 기네스북감이라 하겠다.

금년에 치루어야 하는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는 대통령이 그토록 자랑으로 삼는 6·29선언(누구의 작품인가에 대한 시비는 남아 있지만)의 골자요, 여야의 정치적인 합의사항일 뿐더러 법률의 규정이다. 그런데도 그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엎다니,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지방 자치단체장의 선거 연기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요, 법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더러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던 말인가! 그래서 안된다! ㉠

순정이 산책



진상규명에 소홀한 우리정부

일치주간을 맞이하여

“누가 우리들더러 이웃이라 하는가?”

전주한일신학교 / 이 영 호 목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비스러움을 지닌 우리들 교회는 교회간의 일치에 도모하기 전에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힘 쓰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루가복음서 24장에서 우리는 신비로운 일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글레오파와 또 다른 제자는 침통한 얼굴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온 일들을 후회하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 그들의 희망을 잃은 대화에 동참 하셨습니다. 해가 저물어 목을 집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은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절망과 포기된 삶, 허기진 삶에 친히 일치하시고자 자신의 빵을 떼어주시는 고통과 사랑의 신비에서 제자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일치의 노력이 신음하는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일치운동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가르침대로 마음의 쇄신,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기억합니다. 자기 자판을 내세우고 싶었던 한 율법교사가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힐문하듯 물었을 때 주님은 한 강도 만난 사람과 그를 붙잡혀 여기고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는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주고 후일 비용까지 부담하며 부탁했던 한 사



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후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물음을 뒤집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자만스런 율법교사와 같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계속 물어왔으며 우리가 규정한 이웃들에게 우리식의 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물음은 오늘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불속에 몸을 던지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은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물음은 “누가 나더러 이웃이라고 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바뀌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일 것입니다.

허망한 풍요가 과장되고 있는 우리 사회, 폭력이 힘이 되어 있는 사회, 거짓과 부도덕이 정당시되고 있는 전면적 부패상황의 사회에서 정의와 사랑이라는 하느님의 분명한 법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 약한 자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편을 들지 않고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일치운동은 성취될 수 없을 것입니다.

1889년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 흑심한 기근이 일어났을 때 당시 천주교의 블랑(Blance) 주교를 중심으로 중심하여 조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개신교 선교사들과 함께 구호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민족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려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천주교·개신교 만남의 첫 계기였습니다. 1970년, 1980년대 그 어려웠던 시대에 이 땅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일치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이해에 급급할 때 일치운동은 저조되었습니다. 마음의 쇄신없이 일치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금 우리는 민족의 역사적 과제와 위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 일치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쓴 잔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에 이루시고 인간으로서 한계상황에서 신음하던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사람들과 함께하셨던 주님의 신비로운 삶, 그 마음에 우리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일치시키기 위해 신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친 최안나 치상 때 기도해주신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봉섭 신부, 형제들 올림

<특별강연>
성공적인 삶의 비결
1월19일(일) 오후2시, 7시(2회)
장소: 전주 가톨릭센터 대강당
주최: 한국정신과학연구회
연사: 김중배(말시아노)박사
※ 신자여러분의 많은참석바람.

'92학년도 유치부 원아 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호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세호남(전주역 앞) 253-1411
효자(삼천동쌍용APT앞) 221-8331
원장 유병철(베드로) 박경애(인젤라)

RECOLTE
레콜트 (주)동방산업
(숙녀 의류)
중앙동4가7-2(도 민원봉사실 앞)
82-3904
박영목(미카엘)
정진화(미카엘라)

잡 관

“수류 본당 기도모임에 관하여”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류 본당의 문선구 신부님이 하시는 각종 기도모임과 신심행태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기에 가톨릭의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면들이 많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문 신부님과 신부님을 둘러싸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 교회 정신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일련의 행동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1992년 1월 9일 비상 사제총회를 열어 제위 신부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지만, 이번의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오늘날 한국 종교계 일반이 빠져들기 쉬운 어떤 병리적 현상의 표출이며, 따라서 건전하고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이성을 되찾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여 오늘의 시련을 전회회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바입니다.

1. 모든 신자들은 수류 본당 내에서 뿐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문선구 신부가 지도하는 특별 강론, 피정, 연수, 각종 기도모임, 철야기도, 다락방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것을 금합니다. 아울러 문선구 신부와 관련되어 제작 배부된 모든 테이프(강론, 성가, 기도문 등)나 출판물(책, 팸플릿, 기도문 등), 기타 물품(돌매이, 오색묵주, 스티카 등)의 사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2. 1992년 1월 6일 오후 5시30분경 전주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에 불법 난입하여 시작한 단식 농성은 가톨릭교회의 정신과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를 즉각 중지하고, 각자가 정으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3. 그간 문선구 신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도모임에 협력해온 박청자(데레사), 최영숙(올리바), 윤혜경(안젤라) 씨는 성령은사를 빙자한 일체의 행위(치유, 예언, 구마, 안수 등)를 할 수 없으며, 모든 신자들도 이들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금합니다.

1992년 1월 10일

천주교 전주교구장 이 병 호 주교

※ 인사 발령

1. 문선구 신부 면)수류 본당 주임신부 명)교구청 대기
2. 김준호(사목국장) 신부 명)수류 본당 주임신부 겸임
3. 부임 일자: 1992년 1월 15일

교 구 소 식

※ 치명자산 성지개발 헌금: 독일 마인쯔 한인 천주교회 김재덕께서 1천만원을 보내왔습니다.

1. 부제·사제서품자 피정: 1월19일-26일 광주가톨릭대학,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본당 구역(반)장 연수회: 1월19일-21일 나바위 피정의 집(이리, 익산, 군옥지구), 1월22일-24일 천호 피정의 집(북전주, 남전주지구).
3. 교사학교: 1차(남전주, 이리, 익산, 김제, 정읍지구)-2월7일~15일, 2차(북전주, 군옥, 임순남, 무진장지구)-2월17일~25일, 전동 성당 교육관, 대상-초·중·고 교리교사.
4. 혼인강좌: 1월26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 1만원, 문의 85-5098.
5. 성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교구 이사회 총회: 1월25일(토) 오후2시 교구청 별관 1층.
6. 사제 어머니들의 모임: 1월20일(월) 오후2시 전동 성당.

요심이(963) 김병오



주방 직원 모집

자격: 영세한 지 3년이상, 35세 전 후의 여성(출퇴근 가능한 분)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마감: 1992년 1월 25일
 면접일자: 1992년 1월 29일
 전주교구청 관리국 ☎ 85-0041

여사무원 채용

자격: 고졸 이상(상고)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1통,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본당 신부님 추천서, 영세증명서.
 이후동 천주교회 ☎ 84-3244

행사용/기념품/판촉물/상패/실크인쇄
 간판/네온사인/실내장식/니염/플래카드

중합광고물 제작업체



대표 김 창 식(스테파노)
 (도 교육위원회 역)

☎ (0652)252-0207, 252-0208
 FAX 252-0207
 P.P 012-681-0898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헬레나)

한아름부엌 완산대리점

사무용품, 장승가구

장승백이 예그린아파트 중간
 ☎ 88-7603, 88-9984

김영춘·강희선(벨리벳다)

현대 미용학원

미용·피부, 본과, 연구과

☎ 86-221, 254-3003

김 데레사(금순)

진북동 제일예식장 맞은 편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1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승 남

1. 예비자 모집: 교리시간 ① 학생-매주 토요일 후4시30분 ② 일반-일요일 전11시 금요일 후7시30분
 2. 구역(반)회합 연수: 22일~24일 천호피정의 집.
 3. 전례 봉사자 교육: 25일 후2시30분
 4. 유아 세례: 25일 후2시30분
 5. 노송신협 총회: 26일 12시.
 6. 성우회: 35세이상~45세이하
 7. 대건회: 45세이상~55세이하 회원모집중-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8. 금주침소: 인후1, 2반 차주침소: 인후3, 4반.
- ☐ 지난주 봉헌금: 829,530원 ☐ 교무금: 318,6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예비자 교리 시간안내: 일반인-주일 오전9시(수녀님) 직장인-목요일 저녁미사 후(신부님)
 2. 유아세례: 25일 저녁6:30분(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3. 초등부 교리교사: 중·교지도자및 복사단 단합대회: 23일 9시 30분 출발장소-무주.
 4. 청년회 임원개편: 회장-조정석(아오스딩) 부회장-박기석(바오로) 총무-박명일(테레사)
 5. 회합: ① 성우회(공식미사 후) ② 빈첸시오회(25일 오전10시 ③ 울트레아(26일 공식미사 후)
- 성당침소(25일): 의덕의 거울Pr. 셋별Pr.
금주전례: 정승훈 독서-이상인씨 부부 봉헌-황길평씨 가족
차주전례: 최육남 독서-박상기씨 부부 봉헌-김중현씨 가족
- ☐ 지난주 봉헌금: 668,810원 ☐ 교무금: 866,2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욱

- ※ 학사님 부제품: 27일(월)오전10:30분, 중앙성당, 맑은기도 부락도입니다.
1. 성가경, 청년회: 공식미사 후 2. 성가대 월례회: 25일 저녁미사 후 3. 사회복지주일: 다음주 2차헌금 4. 구정합동위령미사: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5. 주의봉헌축일: 2월2일 조봉헌 하세요.
 6.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7. 성서읽기: 목시6장~13장
 8. 청소년사: 평화의 모후Pr 9. 성가대 임원개편: 단장-김영신(요셉) 부단장-주영애(크리스티나) 총무-남미경(베로니카) 섭외-김준호(도마)
 10. 금주전례: 해설-여정진 독서①김봉길 ②김급자 봉헌-최상욱, 박동철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송봉덕 독서①양주태 ②김순이 봉헌-유순천, 유순근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278,890원 ☐ 교무금: 435,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오늘은 연중제2주일!

1. 회의: 성모회-1월19일(오늘)공식미사 후
 2. 모임: 전례부-1월23일(목)오후8시
 3. 알림: ①봉성체-1월22일(수) ②초축성-2월2일(주의봉헌축일)92년도본당 제대초 및 각 신자들의 가정초를 축성하오니 봉헌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봉헌 해주시기바랍니다. ③구역(반)장연수-1월22일(수)~1월24일(금)(2박3일) ④구정합동위령미사-구정합동위령미사예물을 사무실에 접수해주세요(조상들을위하는마음 기도하는마음으로) ⑤본당청년회정기총회-1월19일(오늘)오후5시정각(청년들의많은참석바랍니다)
- ☐ 지난주 봉헌금: 663,780원 ☐ 교무금: 320,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작 환

1. 구역 반 모임에 적극 참여 합니다.
 2. '92년도 교무금 신입서 제출.
 3. 중고생을 위한 피정: 29일 오전9시출발~30일 오후6시도착(나바위 교육관;회비 7,000원 오늘 신청마감)
 4. 구역장·반장교육: 22일~24일(천호성지)
 5. 사목회: 24일(금)오후8시.
 6. 제대초 봉헌및가정용초 축성: 2월2일(사무실 접수마감)
- ☐ 지난주 봉헌금: 655,000원 ☐ 교무금: 445,5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 성전보수헌금비람. ※ 교무금 신입비람.
1. 바티의 성모 Cu: 금일 오후2시.
 2. 성학회: 20일(월) 오후6시.
 3. 구역반장 연수: 22일~24일 천호피정의 집.
 4. 가족성가 경연대회: 25일(토) 오후7시.
 5. 클로리아 성가대 임원개편
단장: 오순덕(크리스티나) 부단장: 이범주(대건안드레아)
총무: 강성룡(안드레아) 회계: 이은주(세실리아)
 6. 차주모임: ①성마리아 Co(오후2시)
②청년연합회 정기총회(저녁미사후)
- ☐ 지난주 봉헌금: 1,612,97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 ※ 축! 사제서품 및 부제서품: 장소-중앙성당 오전10시30분. 사제서품-28일, 부제서품-27일(송영진 모이세)
1. 설날 합동 위령미사 예물접수: 19일~2월3일 접수-사무실
 2. 구역회합 연수: 22일~24일 천호. 보조-20,000원 본인-15,000원
 3. 성탄 세례자 첫교배: 24일 오전10시~12시 오후7시.
 4. 한자 봉성체: 23일 전9시30분. 병자를 모신 가정은 접수.
 5. M.E 제37차(동촌)재모임: 25일 후2시30분. 가톨릭 센터.
 6. 본당 자체감사: 24일 전10시부터. 상임위원 전원 출석 바람.
 7. 다음주일은 사회복지주일 2차헌금: 정성껏 봉헌 바랍니다.
 8. 회의: 청년회-19일 후8시. 성가대 월례회-어머니미사 후. 빈첸시오-25일 전10시30분 울트레아-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 지난주 봉헌금: 786,440원 ☐ 교무금: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범 길

1. 사목회, 자모회: 오늘미사 후. 2. 청년회: 다음 주일미사 후.
3. 반모임: 21일(화)오전10시30분-성원골드. 오후2시30분-한양운남. 오후8시-삼정1. 3. 22일(수)오전10시30분-화산1. 오후2시30분-신일. 23일(목)오전10시30분-동신. 오후2시30분-화산2(A)
4. 구역반장 연수: 22일(수)~24일(금) 천호피정의 집.
5. 교무금 신입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6. 단체성 소개: 성모회장-이중순 자모회장-서전희 제대회장-강병순 대건회장-이광석 청년회장-이병도 교사회장-김현진
7. 금주전례: 김우회 독서·봉헌: 노영자, 전승중
차주전례: 최정순 독서·봉헌: 최정순, 반중복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증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이 동 실

1. 축! 영세 및 첫 영성체 어린이(어제)
 2. 구역장(반장, 총무)연수회: 22(수)오전10시~24(금)오후까지(많은참여를바랍니다)
 3. 91년도 미납된 교무금 속히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새해 교무금을 속히 신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전복구및 평화사업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성전정화사업비 총소요액 3천8백만원
 5. 신자생활을 열심히 합시다(1신자 1단체 가입합시다)
 6. 매월 마지막주는 봉당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성전정화사업을 위한 헌금입니다)
- ☐ 지난주 봉헌금: 1,321,600원 ☐ 교무금: 1,072,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1. 반기도회준비모임: 24(금)10시미사 후.
2. 삼거리 공소미사: 24(금)저녁
3. 유아세례: 25(토)오후2시 4. 가정방문: 21(화)청하 22(수)동원
5. 교리교사모집: 초등부, 중고등부 교리교사 모집합니다.
6. 청년피정: 25(토)오후6시~26(일)새벽6시 참가비: 2,000원 본당 모든 젊은이들의 참여바랍니다.
7. 중·고생 모악산산반: 19(일)9시 학생미사 후 출발 차주모임-반석회, 요셉회, 사목회 ☐ 지난주 봉헌금: 1,197,480원
금주전례: 해설-정이봉 독서①강복수 ②이찬우
기도-①손효성 ②이정우
차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조세열 ②이정금
기도-①김관주 ②조영애